

일제강점기 한국 신종교 정도교(正道敎) 연구

-개신교적 영향을 중심으로-

박병훈(서울대학교)

I. 머리말

한국 가톨릭은 이승훈이 중국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 1784년에 시작하였으며, 한국 개신교는 19세기 말 언더우드(H. G. Underwood), 아펜젤러(H. G. Appenzeller) 등 외국 선교사의 입국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신교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한국신자들의 죄의 고백을 통한 각성을 촉구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였고, 개신교는 새로운 시대의 문물을 전한 동시에 당대 한국 종교 지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개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신종교가 주목된다. 한국 신종교는 1860년 수운 최제우의 동학의 탄생으로부터 비롯하는데, 이후 증산교단,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등등 다종다양한 신종교들이 등장한다. 이들 신종교는 근대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강점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기존 사상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한국과 한국 민족의 구원책을 모색하였다. 이 가운데 신종교가 기대고 있는 사상적 자원 중에 개신교 역시도 큰 지분을 차지하였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이순화(李順和, 1869~1939)의 정도교(正道敎)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의 종교지형을 바라보고자 한다.



그림1. <현 정도교의 모습> ©이호재(2024년 3월 23일 촬영, 출처 : 에큐메니안)

최중현(崔重鉉)은 한국 메시아운동사의 첫머리에 정도교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메시아란 ‘신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인물’¹⁾을 뜻하는 용어이다. 정도교는 정감록으로 대표되는 비결신앙과 유불선 삼교를 종합하되 이 가운데 개신교적 영향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는 개신교계 신종교라 하겠다.

이순화는 경상남도(慶尙南道) 거창군(居昌郡)에서 1869년 태어나 18세에 남편과 결혼하고 1913년 남편과 함께 만주의 봉천성으로 이주하였다. 그녀는 전도부인을 통해 개신교를 믿기 시작하였는데, 1917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만주 봉천(奉天)에서 정도교를 창교하였다. 이후 1919년 6월 26일 서울 4대문에 박기운(朴氣運)·이원근(李元根)·진응수(秦應洙)·전여수(田汝秀)·노원장(盧元長)과 함께 정도교의 상징인 녹색십자기(綠十字旗)와 팔괘기(八卦旗)를 게양하여 일본을 규탄하는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²⁾ 이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뒤 1924년 계룡산(鷄龍山) 신도안(新都案)에 정착하여 교단 생활을 영위하다가 1939년 사망하였다.

본고에서는 정도교의 내용과 특징을 통해 개신교가 한국 종교, 특히 신종교에 끼친 영향을 살피도록 한다. 이에는 정감록 사상, 특히 궁궁(弓弓)에 대한 인식이 개신교와 어떻게 조우하였는지, 신종교의 시운 사상이 개신교계 신종교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 등의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

II. 십자가와 정감록의 弓弓

십자가는 18세기 북경 천주교당에 방문하였던 조선 사신들에게 무척 낯설고 기이한 물건이었다. 조선 유학자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은 다음과 같이 평하기도 하였다.

명 만력(萬曆, 1573-1620) 때 서양의 마태오 리치(利瑪竇)가 중국에 들어오니 그 교가 비로소 행하였다. 이른바 십자가란 것이 있으니 교중의 사람이 반드시 예배하며 이르기를 “서주(西主)”가 이 형을 받고 죽었다“하니 가소롭다. 서교 중의 주요한 뜻은 대개 괴상한 말이 많고 사람을 속이고 혹하게 한다.³⁾

그러나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 십자가(十字架), 특히 십자가고상(十字苦像)은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다닐 만큼 신도들에게 귀중한 물건이었다. 이들 십자가는 당시 천주교 박해 상황에서도 신도들간에 신앙의 상징으로 비밀리에 유포되었으며, 십자가에 대한 낯선 인상은 점점 친밀해져 갔을 것으로 보인다.

십자가의 본격적인 한국 토착신앙과의 만남은 신종교와 개신교에서 정감록(鄭鑑錄)으로 대표되는 비기도참신앙(秘記圖識信仰)을 바탕으로 하여 시작된다. 조선말의 상황에서 비기도참의 영향에 대해 조선의 유학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공포에 젖어 흐느끼며 『도선비기(道詵秘記)』와 『정감록(鄭鑑錄)』의

1) 최중현, 『한국 메시아운동사 연구』, 생각하는백성, 1999, 11쪽. 다만 최중현은 자료의 제한과 현재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정도교는 크게 비중을 두어 서술하지 않았다.
2) 이순화는 이러한 공훈으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追叙)받았다.
3) 洪大容, 『湛軒書』 外集 卷二, 「乾淨衛筆談」

참설(讖說)을 말하면서, “아무 해에는 반드시 병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거나, 또는, “아무 해에는 반드시 큰 옥사(獄事)가 일어나 피가 흘러 시내를 이룰 것이고, 이 때문에 인종(人種)이 끊어질 것이다.” 한다. 그리하여 자기의 인척(姻戚)과 친구들에게 토지와 가옥을 팔고 선조의 분묘(墳墓)를 저버린 채 호랑이와 표범이 득실거리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난(難)이 지나가길 기다리라고 권고한다.⁴⁾

『정감록(鄭鑑錄)』은 엄밀하게는 하나의 단일한 서물은 아니다. 앞으로 올 재앙과 그 재앙의 때를 예언하고, 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한 여러 잡다한 비결서들이 있으며, 이를 통칭하여 보통 『정감록(鄭鑑錄)』이라 일컫는다. 이씨가 다스리는 조선이 멸망하고 정씨가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계룡산에 들어선다는 플롯이 기본적이며, 한편으로 이들 비결서에 등장하는 ‘궁궁(弓弓)’⁵⁾의 의미에 대한 관심이 컸다. 예컨대 1748년 몰락양반 이지서 등의 궤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말들이 등장한다.

“도선비기(道詵秘記)가 있는데 용두(龍頭)와 사미(蛇尾)에 대해 운운한 것이 있다. 용두(龍頭)는 곧 무진년(戊辰年) 정월(正月)이고, 사미(蛇尾)는 곧 기사년(己巳年) 12월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왜인(倭人) 같지만 왜인이 아닌 것이 남쪽에서 올라오는데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닌 궁궁(弓弓)이 이롭다고 했다. 그러나 이른바 궁궁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⁶⁾

“왜인(倭人)같지만 왜인이 아닌 것이 남쪽에서 오는데 물도 이롭지 않고 산도 이롭지 않고 궁궁(弓弓)이 이롭다. 이 고을에 대인(大人)과 명장(名將)이 있다.”고 운운(云云)하고서 “여기에서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⁷⁾

여기서 ‘궁궁(弓弓)’은 자세한 의미를 알 수는 없으나 앞으로 올 재난을 피하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지서 일당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르면 궁궁이 의미하는 바는 활의 허리와 같이 구부러진 곳에 숨으라는 뜻으로 피란을 위해 집에 머무르라는 뜻으로, 광활한 곳으로 가라는 뜻 등이었다. 곧 궁궁은 어떠한 장소를 가리키는, 공간적인 의미였다. 그러나 동학에 와서 궁궁은 의미의 전유(專有, appropriation)를 겪는다. 한국 최초의 신종교인 동학의 창교자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는 다음과 같이 궁궁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괴이(怪異)한 동국참서(東國讖書) 추켜들고 하는 말이
이거(已去) 임진왜란(壬辰倭亂) 때는 이재송송(利在松松) 하여 있고
가산(嘉山) 정주(定州) 서적(西賊) 때는 이재가가(利在家家) 하였더니
여화 세상 사람들아 이런 일을 본받아서
생활지계(生活之計) 하여 보세 진(秦) 나라 녹도서(錄圖書)는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라고 허축방호(虛築防胡) 하였다가

4) 『茶山詩文集』11, 「五學論5」

5) 때로 乙乙, 弓乙, 弓弓乙乙 등으로 나타난다.

6) “‘道詵有 秘記矣, 龍頭蛇尾云云. 龍頭, 卽戊辰正月, 蛇尾, 卽己巳臘月.’ 又曰, ‘似倭非倭, 自南 而來, 非山非水, 利於弓弓. 所謂弓弓, 未可知也.’”(『英祖實錄』67권, 英祖24(1748)年 5月 23日)

7) ‘似倭非倭, 自南而來, 不利於水, 不利於山, 利於弓弓. 此邑有大人, 名將’之云云, ‘若不出於此, 則其禍必大矣.’”(『英祖實錄』67卷, 英祖24年(1748) 5月 23日)

이세(二世) 망국(亡國) 하온 후에 세상사람 알았으니
 우리도 이 세상에 이재궁궁(利在弓弓) 하였다네
 매관매작(賣官賣爵) 세도자(勢道者)도 일심(一心)은 궁궁(弓弓)이오
 전곡(錢穀) 쌓인 부침지(富僉知)도 일심은 궁궁이오
 유리걸식(流離乞食) 패가자(敗家者)도 일심은 궁궁이라
 풍편(風便)에 뜨인 자도 혹은 궁궁촌(弓弓村) 찾아가고
 혹은 만첩산중(萬疊山中) 들어가고 혹은 서학(西學)에 입도(入道)해서
 각자위심(各自爲心) 하는 말이 내 옳고 네 그르지
 시비분분(是非紛紛) 하는 말이 일일시시(日日時時) 그뿐일네 ...
 가련(可憐)한 세상사람 이재궁궁(利在弓弓) 찾는말을
 웃을것이 무엇이며 불우시지(不遇時之) 한탄(恨歎)말고
 세상(世上)구경 하였어라 송송가가(松松家家) 알았으되
 利在弓弓 어찌알꼬 천운(天運)이 돌렸으니
 근심말고 돌아가서 윤회운수(輪回時運) 구경하소
 십이제국(十二諸國) 괴질운수(怪疾運數) 다시 개벽(開闢) 아닐런가⁸⁾

동국참서(東國讖書)는 조선의 정감록과 같은 비결서를 의미하며, 이재송송(利在松松), 이재가가(利在家家)라는 구절을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임진왜란과 1811년 일어난 홍경래(洪景來)의 난(亂)과 연결시킨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우러 온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을 뜻한 것으로, 홍경래의 난이 겨울에 일어났기에, 도망간 이들이 얼어죽었던 점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난에 살아날 방도를 일컫는 구절로 이재궁궁(利在弓弓)이라는 말이 남아 있기에 사람들은 ‘궁궁’이라는 비결을 갖가지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지리적 형상에 따라 궁궁촌(弓弓村)을 찾아가거나, 서학(西學), 곧 가톨릭을 신앙하거나 한다는 것이다. 동학은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궁궁의 의미가 지리적인 공간도 가톨릭이라는 종교도 아닌 자신의 교단임을 암시하고 있다. 앞으로 온 세상에 전염병이 도는, 천지가 다시 개벽하는 것과 같은 시운이 올 것이며, 이에 동학에 들어와야 한다는 믿음이다. 동학은 소위 영부(靈符)라 하는 동학교단의 부적 모습을 궁궁(弓弓)으로 제시하고, 영부를 통해 사람을 병에서 고치게 할 것을 천주로부터 받은 사명(使命)으로 인식하였다.

대답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나(上帝, 天主)에게 영부(靈符)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仙藥)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弓弓)이니, 나의 영부(靈符)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長生)하여 덕(德)을 천하에 퍼리라. ... 이것을 병에 써봄에 이르른 즉 혹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하므로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그러한 이유를 살펴본 즉 정성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어 지극히 하늘님(天主)을 위하는 사람은 매번 들어맞고 도덕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하 나도 효험이 없었으니 이것은 받는 사람의 정성과 공경이 아니겠는가.⁹⁾

8) 「夢中老少問答歌」『龍潭遺詞』

9) “曰 不然 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 受我呪文 教人爲我 則汝亦長生 布德天下矣 ... 到此用病 則或有差不差 故莫知其端 察其所然 則誠之又誠 至爲天主者 每每有中 不順道德者 一一無驗 此非受人之誠敬耶”(『東經大全』, 「布德文」)

영부(靈符)는 천주가 수운 최제우에게 내린 두 가지 주요한 방법, 곧 주문과 영부 중에 하나이다. 이 영부의 목적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하는 것이다. 앞에서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라 하여 시운에 따른 전염병의 위기가 올 것을 말하였는데, 영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병을 낫게 하는 방안이 된다. 그러나 이 영부는 약(藥)과 같지는 않다. 곧 복용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다. 영부를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써 보니¹⁰⁾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지 않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 천주를 위하여 정성을 바치고 공경하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효험이 없었다는 것이다. 곧 주문¹¹⁾과 마찬가지로(“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영부 또한 천주를 위하는 뜻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제우는 영부의 모습을 궁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천주를 위하는 정성과 연결함으로써, 기존 정감록과 같은 비기도참의 궁궁 용어를 동학의 핵심적 교리로 전유(專有)하여 표현하고 있다.

다만 동학 초기에 궁궁(弓弓)은 십자가와 분명하게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학적 사유는 비결서에 대해 더욱 천착하였고, 20세기 들어 나타난 후기동학교단 동학교(東學敎)¹²⁾는 이를 십자가와 연결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東國識書 傳한글에 松松家家 지났으되
그때時運 어기지않고 맞쳤으니 오는時運 안맞힐까
至今時節 오는運數 利在田田 때가 또한 도라오니 道下止가 안맞힐까
때運數 道下止로 成功이니 어서 바빠 깨달아서
弓乙經에 뜻을 이뤘 弓弓理致 알게되면
亞字길이 그 아닌가 버금亞字 둘러보니 白十字가 分明하다
白十字를 比해보니 田田二字 彷彿하다

동학교는 ‘利在弓弓’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전해져 오던 ‘利在田田’이라는 비결구에 주목하여, 궁궁(弓弓)을 우선 버금 아(亞)字와 연결시킨다. 이는 궁궁 두 글자를 등을 맞대고 붙이면 아(亞)자字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아’자(亞字)의 가운데 공백을 백십자(白十字)와 연결시킨 뒤, 다시 전전(田田)의 모양을 찾고 있다.¹³⁾ 이러한 십자가와 정감록 비결구와의 연결은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우리 대한 동포들이 항상 정감록에 있는 말을 믿고 계룡산과 십승지지와 궁궁을을지간과 도하지를 찾느라 충청도와 경상도와 함경도와 전라도로 다니는 이가 많되 찾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백납한(Abraham)이라 하는 글자를 보면 십승지(十勝之地)라는 십(十)자와 궁궁을을(弓弓乙乙) 자가 겹비하였는지라 버금 아(亞)자 가운데 흰 획은 열십자(十)가 분명하니 주의 십자가를 믿는 곳마다 십승지지가 될 것이요, 버금 아자 좌우 획을 보면 궁궁을을 자가 분명하니 성경을 궁구할 것이요, 정도령이라 하는 바는 정(正)자와 길 도(道)자와 평안 녕(寧)자이오니, 이는 정도(正道)로 살

10) 이는 종이에 영부를 그린 뒤 불에 태워 그 재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식이었다.

11) 동학의 주문은 강령주문과 본주문 등으로 나뉘는데, 강령주문은 ‘至氣今至 願爲大降’, 본주문은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이다.

12) 1915년 慶北 尙州에서 김주희와 김낙세에 의해 세워진 東學敎團이다.

13) 박병훈, 「동학교 가사에 나타난 동학사상의 지속과 변모 - 비결, 시운, 성인에 대한 관념을 중심으로 -」, 66.

면 편안하다는 말이오, 또 도하지(道下止)라는 뜻도 되오니 이는 하나님께서 정감(鄭鑑)으로 하여금 주의 십자가 도리를 미리 백성에게 알게 함이라.¹⁴⁾

이는 이승륜이라는 이가 게일(Gale, J. S., 奇一)이 편집장으로 있던 『그리스도신문』에 자신이 찾은 개신교와 정감록(鄭鑑錄)과의 관계에 대해 논한 글이다. 옥성득(玉聖得)은 이에서 아브라함의 한자 이름 첫 글자 亞에서 십자가 十을 찾아내고, 십승지지(十勝之地)는 십자가를 믿는 교회이고, 궁궁을을(弓弓乙乙)은 십자가 형상이며, 정도령(正道寧)은 예수교를 믿으면 편하여진다는 뜻을 말한다고 지적하였고, 평신도의 예언풀이가 선교사와 한국 기독교인에게 수용되고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지점을 강조하였다.¹⁵⁾ 위 인용문은 정감록에서 예언자로 등장하는 정감(鄭鑑)이 개신교의 십자가 도리를 예비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동학이 궁궁을 동학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신교 역시도 궁궁에서 기독교적 의미를 찾았다는 점은 흥미로운 지점이며, 새로운 종교사상에 대한 수용이 전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Ⅲ. 정도교에서의 십자가와 깃발

이순화는 개신교인이었으나, 1917년(丁巳年) 음력(陰曆)¹⁶⁾ 3월 9일 미시(未時) 만주 봉천(奉天)에서 하나님¹⁷⁾의 계시를 받고 정도교를 창시하게 된다. 첫 계시말씀에 담긴 내용은 정사년(1917)까지는 선천 최악시대이며, 이 기회에 녹십자기와 팔괘기를 날려야 하고, 이렇게 되면 천하 만국이 다 한나라가 되어 천국 복을 받게 될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2~3년 동안에 천하 만국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조처를 내리는데 천하 만국의 군기(軍器)를 다 거둬야 하며, 일본도 역시 군기를 거두고 조선과 동등조약을 하여 일본은 일본을, 조선은 조선을 보호하라는 내용이었다.¹⁸⁾ 처음 계시에 담긴 내용은 이후 계속하여 계시를 통해 반복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째, 시운에 대한 가르침을 내렸다는 것, 둘째, 녹십자기와 팔괘기라는 깃발이 중시된다는 점, 셋째, 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경계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두었으며, 조선은 그 밑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 가운데 일본을 경계하는 말씀을 처음 들었다는 점은 정도교에 있어 무척 중요한 측면이다. 정도교는 이후 전국적인 독립운동이 벌어졌던 1919년에 교인들과 함께 녹십자기(綠十字旗)와 팔괘기(八掛旗)를 서울 사대문(四大門)에 게양하여 일본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벌여 감옥에 갇혔을 정도로 일본에 대한 대항의식이 충만하였던 것이다.

14) 이승륜, “亞 버금 아자 속이 십자가가 됨”, 『그리스도신문』, 1906년 3월 21일. 원문을 현대어로 운문하고, 몇몇은 한자를 병기하였다.

15) 옥성득, 『한국 기독교 형성사』, 239.

16) 正道教總本部, 『正道教法文』은 음력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본고에서도 이 뒤에 별다른 표시 없이 음력으로 날짜를 표기하도록 한다.

17) 이외 아버지, 성부, 생불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때그때 명칭을 혼용토록 한다.

18) 正道教總本部, 『正道教法文』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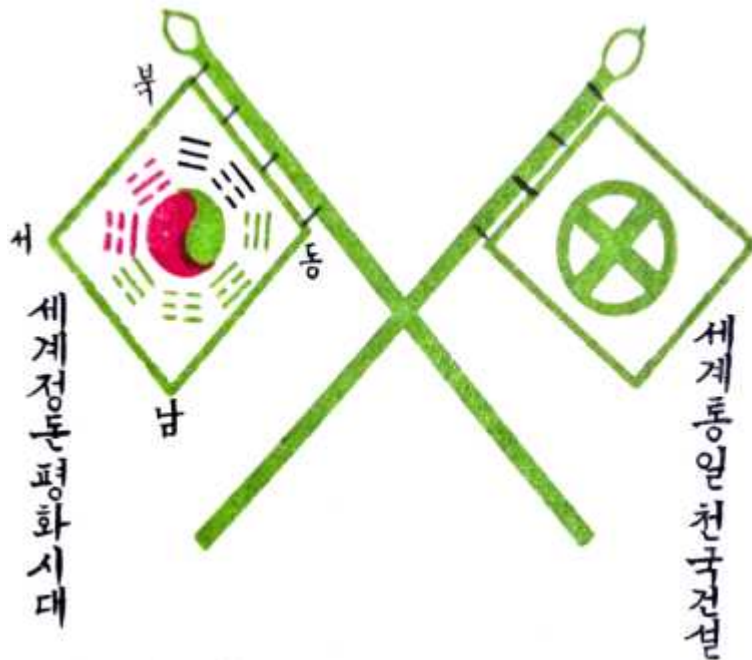


그림2 <녹십자기와 팔괘기>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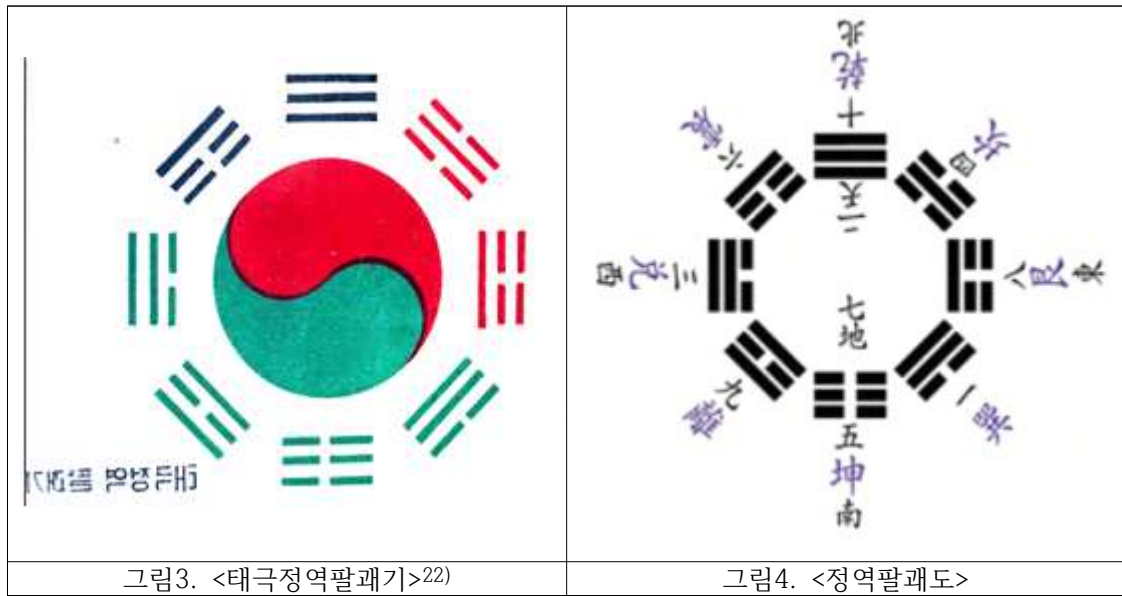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 녹십자기와 팔괘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앞서 최초의 계시에 녹십자기와 팔괘기에 대해 “이 기는 천하 만국 기호이므로 선천에 쓰던 기는 다 일체로 없애버리고 이 기를 천하만국에서 사용할 것이니 부디 그리 알고 하여라. 할 것은 십자의 색은 녹색으로 하고 팔괘기도 동남은 녹색으로 하고 서편에는 홍색으로 북편에는 검붉은 색으로 하여라. 이와 같이 하는 뜻은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는 뜻이고 이 세상이 썩어진 세상에서 새 세상 표적이니라.”²⁰⁾라 하여 깃발의 색깔 등의 형태를 지정해 주고 있고, 마치 무화과나무에서 잎과 꽃이 피듯 썩어진 세상에서 새 세상이 나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이후 1917년 7월 7일 미시(未時)의 계사에서 다시금 녹십자기를 날릴 기회를 알지 못하고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탓하며, “너희가 개인 개인이 십자기와 팔괘기를 가지되 바탕은 동근 흰바탕이요 자획(字劃)은 녹색이요 척수(尺數)는 장광(長廣)이 다섯치요 깃대는 아홉치로 하여 우편 가슴에 꽃고 태극기도 장광 척수가 십자기와 같이 동근 흰 바탕에 태극太極은 동편東偏에는 녹색이요 서편西偏에는 홍색이요 북편北偏에는 흑색이니라”²¹⁾라고 깃발 만드는 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한편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녹십자기는 녹색 하나만 쓰는데 반해 팔괘기는 빨강, 검정, 녹색 3가지 색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팔괘기는 태극기로도 지칭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팔괘도(八卦圖)의 배치는 일부(一夫) 김항(金恒, 1826~1898)의 정역팔괘도와 일치한다. 이는 정도교 분파(分派) 정도교대본영원(正道教大本營院)에서 해당 깃발 이름을 태극정역팔괘기(太極正易八卦旗)라고 호칭하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19) 正道教總本部, 『正道教聖歌』 1쪽.

20) 正道教總本部, 『正道教法文』 1장.

21) 正道教總本部, 『正道教法文』 14:4



김향은 기존 복희(伏羲)의 선천팔괘도(先天八卦圖)와 문왕(文王)의 후천팔괘도(後天八卦圖)에 이어 자신만의 정역팔괘도(正易八卦圖)를 고안한 인물로 유명하다. 이를 통해 기존까지의 세계를 선천(先天)으로, 앞으로 올 세계를 후천(後天)으로 규정하는 등 선후천에 대해 사상적 체계를 역학(易學)을 통해 제공하였다. 곧 정도교는 정역팔괘기를 통해 선후천의 시운에 대한 관념의 일단(一端)을 내비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다만 이는 선후천의 명칭과 정역팔괘도의 수용 정도에 그쳤으며, 이를 더 발전시키지는 못한 듯하다. 정도교의 시운관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논의토록 한다.

각설하고 정도교가 녹십자기와 팔괘기를 날리는 때는 언제인가. 『정도교법문』의 3장, 14장, 16장, 24장 등에서 우선은 1917년 9월 9일로 제시되었다. 즉 중국 안동현에서 흠어진 조선민족들이 일단 다들 모인 뒤에 9월 8일 밤 축시(丑時)에 조선 한성(漢城)에 하륙하라는 내용이였다. 이는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나가듯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였다.²³⁾ 그러나 이 날짜는 헛되이 지나가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1917년 9월 15일에 다시 게시하기를 1917년의 마지막날, 곧 선달 그믐날(12.30)에 안동현에 모여 한성에 가서 동문(동대문)으로 향해 가라 명하였다. 이는 조선을 생문방(生門方)으로 보아 재앙에도 살아날 수 있는 곳으로 여긴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립기(獨立旗)를 날리는 의미였다. 그러나 1917년 정사년에는 끝내 가지 못하였다. 이에 1918년 무오년 1월 4일 자시(子時)에 이를 타박하는 게시가 내려오지만 깃발을 날리는 행위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시행되었다.

이순화를 비롯한 정도교 교인이 동대문에 녹십자기와 팔괘기를 흔드는 것을 통해 일본을 비판하며 항일투쟁에 나서는 것은 1919년 6월 29일에 가서야 가능하였다. 이들은 일제 당국에게 잡혀갔고 이순화는 3년 반의 옥고를 치뤄야 했다. 1923년 출옥한 이후 정도교는 조선 독

22) 정도교대본영원, 『正道敎法文』에 소재한 그림2의 태극정역팔괘기는 본래 동서가 바뀌어 있었는데, 이는 착오인 듯하다.(한수빈, 「개신교계 신종교 정도교 연구-여성, 공간, 후천개벽 등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24, 59쪽 각주 163번 참조)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의 좌우를 반전시켰다.

23) 正道敎總本部, 『正道敎法文』 3장, “천하각국 흠어진 백성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날에 다 모여라” 正道敎總本部, 『正道敎法文』 28장. “마음부터라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당에 못박히려 나가는 그러한 마음을 철석같이 먹고 나가는 자라야 천국 천당 낙원에 들어갈 수 있으니”

랍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신경쓰기보다 현실과는 멀어진 신비적 성격으로 변모하게 되며,²⁴⁾ 이는 1924년 계룡산 신도안으로의 이전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됨으로써 이러한 신비적 성격은 보다 분명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도교는 이후 이순화의 아들 진영수(秦永洙 또는 秦永守)의 정도교총본부(正道教總本部), 소영환의 정도교대본영원(正道教大本營院), 박기운(朴己云)의 정도교 등등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정도교대본영원의 경우 보다 정감록과 같은 비기도참설에 경도된 해석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²⁵⁾ 본래 이순화의 정도교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점들이 적극적으로 정감록식으로 확대 해석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다시금 십자가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그러나 죄악세상을 대표하든 흑색십자 적색십자 양십자운수는 다 지나가고 후천지상천국을 대표하는 녹색십자운수가 왔느니라 ... 또 명령하되 이 녹색십자운수를 증거하여 조선이조시대에 정감이라하는 사람에게 능을 주어 뜻을 알고 행하는자는 이조 오백년 말세의 심판시대에 생명을 구원얻으리라고 한 바 궁궁은 천궁 하늘이라 을을은 지을 땅이라 활궁자를 좌우로 써놓으면 중앙에 무형『亞』 십자가 되고 새을자를 중앙을 끼어 써놓으면 중앙에 유형『卍』 십자가 되느니라 하늘은 형체가 없는 고로 무형십자며 땅은 형체가 있는 고로 유형십자라 그런고로 하늘과 땅(즉 천지부모)이 십자라 리재전전은 천하만민이 천지부모를 모시라는 뜻인 바 모시는 표적으로 십자를 선을 두르니 발『十』 전자가 되고 천하만민이 천지부모를 모시니 천지인 삼합일체가 되느니라 또 십자를 선을 둘러 발전자가 되니 천지경위의 경계가 막혔으니 천지가 하덕되고 동서양이 통일되는 운수가 분명하도다 ... 십승지는 이때에 조선사람이 피란지가 있다고 피란시승지를 찾으려고 남천북천 헤메나 십이 그 십이 아니라 녹색십자십이라 녹색십자는 천지부모라 천지부모의 뜻은 정심정도라 정심정도로 행하는 사람은 살어난다는 뜻이니라²⁶⁾

정도교대본영원에서 십자가는 운수와 연결되어 논해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죄악세상의 대표를 흑색십자, 적색십자 양십자운수와 지칭하고, 후천지상천국을 녹색십자운수라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운수를 정감록의 ‘궁궁을을(弓弓乙乙)’로 해석하여 이를 파자적(破字的)으로 해석해 무형과 유형의 십자(十字)로 해석하고, 이는 천지부모를 상징하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이재전전(利在田田)’은 십자에 주위를 둘러 천지부모를 모시라는 뜻이라 한다. 또한 비기도참에서 재앙에서 살아날 수 있는 열 가지 장소로 여겨진 십승지(十勝地)의 경우도 십(十)이 열 곳이 아닌, 천지부모를 뜻하는 십자(녹색십자)의 ‘십’이라 하여 기존 정감록의 사유를 전유(專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양태이다. 이순화의 정도교에서 정감록적인 요소가 희미하게 드러났던 것에 비해 정감록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으며, 이 가운데 십자가는 개신교적 상징에서 보다 더 한국적 토양의 상징으로 변모해 간다.

24) “또한 조선 민족들이 조선 독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는 일은 다 헛수고 뿐이고 귀하고 귀한 생명만 없어질 것이니 그것저것 다버리고 나의 앞에 들어서서 나의일을 하는 것이 온전한 일이고 천국에 대한 일이니라”(68:19) 한수빈, 「개신교계 신종교 정도교 연구-여성, 공간, 후천개벽 등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24, 33-34쪽 참조.

25) 한수빈, 「개신교계 신종교 정도교 연구-여성, 공간, 후천개벽 등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24, 71쪽.

26) 정도교대본영원, 『正道教法文』 10-11쪽. 본문을 다소 윤문하였다.

IV. 정도교에서의 시운과 아담

시운(時運)은 한국 신종교에 있어 큰 특징이다. 한국 최초의 신종교 동학은 ‘다시 개벽(開闢)’과 같은 위기의 시운이 앞으로 다가오지만, 이러한 시운을 극복하면 지상선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천주에 대한 공경과 도덕이 요구되었다. 이후 20세기 들어 등장한 수많은 신종교가 재앙의 때와 그를 극복한 이후의 세계라는 시운관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일제강점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더욱 호소력을 발휘하였다. 이들 시운관들은 흔히 ‘선천(先天)’, ‘후천(後天)’, ‘개벽(開闢)’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한다. 곧 당대까지의 세계가 ‘선천’, 이후의 세계가 ‘후천’,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개벽’이라고 보통 여긴다.

정도교 역시도 시운관(時運觀)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신종교의 전통을 물려 받고 있다. 이 시운은 창조시대, 죄악시대, 천국시대, 공중시대, 그리고 다시 죄악시대로 나뉘며, 9만 년씩을 각각 한 단위로 한다. 앞의 창조시대와 죄악시대는 선천으로, 뒤의 천국시대, 공중시대, 죄악시대는 후천에 속한다.

선천		후천		
태초 9만년	죄악시대 9만년	천국시대 9만년	공중시대 9만년	죄악시대 9만년
	왕국시대	빛세계		
만물 및 아담의 창조	예수의 탄생과 죽음	1918년 무오년부터 시작.		마리아로 인함

표1. <정도교의 시운관>

태초시대는 천지가 창조된 때이다. 이 당시 ‘하느님’은 말로서 하늘과 땅과 크고 작은 물건 등의 세상 만물을 창조하였다 한다. 만물을 다 만든 후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을 만들고 난 나흘 뒤에 왼편 갈비뼈를 뽑아 헤와라는 여성을 만들었다.

죄악시대는 1917년 정사년까지의 세계이며, ‘선천 9만년’으로 표현된다. 헤와의 죄로 인한 시대이고, 불교, 천주교, 개신교와 같은 기존 종교가 다음에 올 시대를 증거하던 때였다. 정사년은 선천의 마지막임과 동시에 심판이라 하는 재앙이 닥치는 시기로 표상되었다.

천국시대는 1918년 무오년부터 시작되는 지금 현재의 세계로, ‘아버지’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순화에게 계시를 내리는 시기이다. 선천에 있던 죄를 없애고, 마음을 개량해야 하는 세계이다.²⁷⁾ 보통 ‘이 천지 구만년’, ‘빛세계’²⁸⁾로 묘사된다. 다음 공중시대를 위해 대비하는 시기이다.

공중시대는 물욕을 버리고, 빛 가운데 일을 해야 이뤄지는 세상으로 표상된다.²⁹⁾

이 네 시기 외에도 후천 죄악시대가 언급되는데,³⁰⁾ 이는 공중시대 9만년이 지난 뒤 마리아

27) 正道教總本部, 『正道教法文』 47:9

28) 正道教總本部, 『正道教法文』 49:3 “그러나 내가 태초에 이천지 구만년을 빛세계로 작정하고 증거로 세운 것은 석가여래에게도 증거하였고 그 다음에는 천주교도 증거하였고 또한 다음에는 예수도 이때를 가르쳐 증거를 할때에 내가 장차 세상에 갈것이니 믿고 믿고 다시 믿으라고 하였고 천하만국 만민들의 심통 가운데 억만가지 맺힌 죄를 풀어놓으라고 하고 보혜사가 되어야 구원할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와같이 한것이 이때에 나타났으니 이때부터 천하만국에 있는 옳지못한 것은 다 없어지고 영광의 빛이나라 이 빛은 어떠한 빛이고 하니 천하만국 만민의 생명이 영광의 빛이며 이천지 구만년은 빛세계니라”

29) 正道教總本部, 『正道教法文』 47:9, 47:13, 47:14.

의 죄로 인하여 오는 시기이다.³¹⁾

일반적 한국 신종교의 시운관은 우주의 정해진 주기(週期)를 상정하고 그때를 예견하는 것으로, 이전의 나쁜 세계를 선천으로, 이후의 좋은 세계를 후천으로 보고 있으며,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시개벽'과 같은 재앙의 때, 어려운 때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된다.³²⁾ 정도교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신종교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여기서 개신교적 영향인 '죄에 대한 관념'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곧 정도교에서는 아담과 헤와³³⁾에 대한 논의가 시운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이다.

정도교에서는 아담은 태초시대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창조했으며, 그뒤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헤와를 창조하였다.(21장) 그뒤 아버지는 아담과 헤와를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아³⁴⁾ 만나지 못한다. 정사년 3월 9일³⁵⁾ 아담은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이 헤와의 죄³⁶⁾로 인하여 자신 역시도 죄를 짓게 되었다는 점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헤와 이외의 깨끗하고 정결한 다른 여성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나, 아버지는 일남일녀(一男一女)라는 원칙을 들어 만들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본래 아담에게 전해주기로 한 것³⁷⁾을 해당 9만년의 시기가 끝날 때의 정사년에 정결한 여인에게 줄 것이라 한다. 선천 9만년의 세상은 본래 아담과 헤와가 즐거움을 누릴 세상이었으나 불효한 까닭에 죄악세계가 되었으며, 이들의 성적인 원죄로 인하여 인류는 모두 죄를 지니게 되었다고 말한다.

내가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만물의 주인될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름은 아담과 헤와니라 일남 일녀 이 두 사람을 만물의 주인으로 세울 때에 값없이 만들어서 값없이 주었고 천하 각국 십팔억만 인생이 그의 자손이니라 그런데 그 아담과 헤와가 나의 앞에서 불효한 까닭으로 선천 구만년 동안은 좋은 낙세계가 되지 못하고 죄악 세계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또한 그사람들이 남녀간에 좋지 못한 행위를 한 고로 거기서 난 자손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죄의 집을 태산같이 개인개인이 다 지고 있느니라 이죄는 무슨 죄이며 이죄

30) 正道教總本部, 『正道教法文』 50:4 “이천지 구만년 저천지 구만년 두구만년 동안 하여 벌을 받고 저 후천지 죄악시대에 출생하여 해도 달도 없는 곳에서 눈물과 근심으로 지낼 것이니”

正道教總本部, 『正道教法文』 54:6 “이때에 하는 일이 이천지 빛세계의 일이고 후천지 공중세계의 일이며 저 후천지 죄악시대의 일인즉 아무쪼록 죄되는 일을 하지 말고 부지런히 할지어다”

31) 正道教總本部, 『正道教法文』 9:7-8 “구만년을 공중 세계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천하만국 인민들을 거느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구경하고 구경하자. 너의 복은 천국 시대 구만년에는 천하 만국 지구에 차고 후천지 구만년에는 공중에 찰 것이니라. 그 구만년 다간 후에는 또다시 정하기를 죄악세계 정할 것이니라 그 죄악세계 정하기는 유태국에 마리아의 죄값으로 죄악세계 정하였다.”

正道教總本部, 『正道教法文』 33:9 “천국은 어떠한 것이 천국인고 하니 선천 구만년은 아담 헤와의 죄 까닭으로 해도 달도 없는 무간지옥에서 눈물과 근심으로 지냈으나 이 천지 구만년은 천국 천당 낙원 이니라. 이천지 다 지난 후에 저 천지 구만년은 공중 세계 구만년이니라. 그 구만년 다간 후에 또 죄악시대 구만년이 있는데 너희 민족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죽으면 그 영혼일 지라도 무간지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해도 달도 없는 흑암 지옥 죄악시대에 출생시켜 눈물과 근심으로 지내게 할 것이니 조심하고 조심하여라.”

32) 간략화한 것이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종교별로 특징이 있다.

33) 보통 ‘하와’, ‘이브(Eve)’ 등으로 지칭되는데, 에덴에서 뱀에게 속아 선악과(善惡果)를 먹은 원죄(原罪)를 지었다고 하는, 아담과 함께 추방된 존재이다. 정도교에서는 ‘헤와’라고 호명한다.

34) 이는 불효죄로 언급된다.

35) 이때는 태초시대가 마치고, 죄악시대 9만년이 시작된 초로 생각된다.

36) 이는 아담이 경치좋은 산에 구경을 다녀오는 동안 헤와가 무시와 함께 누워있었다고 한 점이다. ‘무시’의 뜻은 잘 알 수 없으나, 성경에 나오는 뱀으로 생각되며, 뱀과 헤와의 간음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37) ‘원앙녹수락’이라 나오는데, 어떤 것인지 정체는 불명이다.

가운데 어떠한 죄가 제일 중대하고 하니 남녀간에 간음죄가 제일 중대하고 둘째는 시기와 분쟁이고 세째는 욕심이고 네째는 물욕과 탐심과 정욕인데 사람을 죽이는 죄가 다 간음에서 우러나는 것인데 이 모든 죄로 인하여 수화중에 들어 있는거와 같으니라³⁸⁾

시운에 따른 시대의 성격이 본래부터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도교의 시각에서 아담이 아버지의 부름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불효의 죄를 지었고, 해와로 인한 남녀간의 행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낙세계(樂世界)가 아닌 죄악세계에 살게 되었다고 한다. 본래 한국 신종교에 나타나는 시운은 본래부터 정해진 주기성을 띤 것이 다수이지만, 성적 타락으로 인해 시운이 바뀐다는 것은 분명 정도교가 지닌 개신교적 요소이며 큰 특징이다.³⁹⁾ 절묘하게 한국 자생의 사상과 외래의 관념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에덴동산의 사건을 성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위 신령파(神靈派)라 하는 개신교계 신종교의 특징인데,⁴⁰⁾ 에덴동산에 대한 이런 해석의 선구로서 정도교를 자리매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⁴¹⁾

이후 아버지는 아담에게 죄악시대 동안 세상에 내려가 죄값을 받으라고 하며, 이후 정사년에 세상 심판을 한 뒤 함께 공중세계 구만년을 살 것을 이야기한다. 이 시기는 해와 역시도 해도 달도 없는 흑암 지옥에서 지냈다고 표현된다.⁴²⁾

죄악시대 9만년 동안 아담은 예수로도 태어났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뒤에는 ‘보혜사(保惠師)’⁴³⁾로 존재하였고, 이후 ‘새별’이란 이름으로 이순화의 자식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예정이었다. 정도교에서는 예수로 태어났을 때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순화는 1917년 2월 16일 임신하였고, 2월 20일 임신에 대한 계시를 받아 자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다’고 말한 것이 원인이 되어 다른 개신교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3월 15일 아이가 유산되게 된다.⁴⁴⁾ 본래 이 아이 아담은 세상의 구원자의 역할을 할 운명과 함께⁴⁵⁾ 세상의 대심판을 맡은 역할이었다.⁴⁶⁾ 이는 본래 태초에 약조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소위 증거자(證據者)의 역할을 맡은 박기운(朴己云)의 정욕으로 인하여 아담이 자 예수였던 새별은 결국 태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정도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38) 正道教總本部, 『正道教法文』 69:2-3

39) 이후 여타의 개신교계 신종교들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시운에 따른 시대 구분이 나타나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40) 최중현, 『한국 메시아운동사 연구』, 생각하는백성, 1999, 196쪽. “창세 당시의 에덴에서 뱀과 하와와 아담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성적 행위의 그것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이 삼자가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41) 이호재는 『에큐메니안』의 칼럼에서 이미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신령파에서 주장하는 종교적 주장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하와와 동정녀 마리아의 간음죄가 인류 타락의 원인(96-101쪽)이며, 불교, 천주교와 예수교가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184-185쪽), 예수그리스도교의 사명은 실패(142-143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의 성서인 ‘신구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 어찌 답답하지 않겠느냐’(199쪽)고 하며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바로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146쪽)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에큐메니안』 「자생형 기독교의 한국적 전개_1 한국 종교지평에서 바라본 한국적 기독교의 유형과 그 역사적 전개_5」, 2025.8.8. <https://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40> 2025.10.12. 검색.

42) 正道教總本部, 『正道教法文』 9:4

43) 기독교적 맥락에서 주로 성령을 가리키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지칭된 바 있다.

44) 일련의 경과는 다음을 참조. 한수빈, 「개신교계 신종교 정도교 연구-여성, 공간, 후천개벽 등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24, 16-19쪽.

45) 正道教總本部, 『正道教法文』 9:4 “나의 아들 아담이 이 세상에 왔으니 이 아담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구원얻지 못하리라”

46) 正道教總本部, 『正道教法文』 11:6 “이 심판은 나의 아들 아담의 이름으로 대심판을 하게 되었으니”

구만년 동안에 첫번 출생할 때에는 예수라고 지었더니 마리아의 죄까닭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혀죽고 두번째 출생하니 새벽 새별이 더욱 좋고 더욱 좋은데 증거자의 죄값으로 그렇게도 못하겠구나 이 죄는 무슨 죄인고 하니 증거자가 나의 명령 거역하고 정욕을 취한 죄이니라.⁴⁷⁾

아담의 많은 역할들이 나오지만, 정감록의 진인(眞人)과 관련시켜 이해해 볼 요소 또한 존재한다. 곧 장래 계룡산에서 등극할 것도 예언되고 있다. 우선 이순화에게 내린 계시 내용 중 정감록에서 중시되었던 계룡산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천국시대, 곧 정사년부터 시작된 새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할 곳은 계룡산으로 명시된다.⁴⁸⁾ 이 계룡산은 당시 보천교(普天敎)나 시천교(侍天敎) 등에서 중시되었는데, 보천교의 차경석(車京石, 1880~1936)이 1924년 갑자년(甲子年)에 계룡산에서 천자로 등극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사회에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계룡산은 정감록 등의 비기도참에서 이씨조선이 망한 뒤에 새로운 진인이 출현하여 새로운 수도를 세울 장소로 생각되었으며, 이에 한국의 많은 신종교들이 몰려들었다. 정도교에서 계룡산은 1917년부터 등장한다.

금년 일년 동안에 천하 만국 통쳐놓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해와 새 달이 될 것이니 이 구만년 내려오던 것은 다 없애버리고 새 세상이니라 명년부터 새 세상이니라 양과 염소가르기는 동지 선달에 갈라 놓고 명년부터 양은 우편에 두고 염소는 좌편에 두고 다스려 명년부터 염소는 잡아다가 계룡산에 터를 닦아 도성 짓게 하고⁴⁹⁾

곧 첫 계시를 받았던 1917년 정사년부터 계룡산이 중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1918년부터 시작되는 새 세상이 오기 전에 양과 염소⁵⁰⁾를 나누는 심판을 1917년 말인 동지선달 때 일어남을 말하고 있으며, 염소로 상징되는 불의한 이들을 새로이 세워질 나라의 도성이 될 계룡산의 터를 닦게 한다고 하고 있다.

계룡산 도읍은 구만년 도읍에 부귀영화를 받아 누리고 진주문을 동서남북에 달아 놓고 양의 띠는 그 문으로 드나들고 염소무리는 그 문에 들지 못하는 문이니라. 속속히 지어야 명년부터 팔년만에 삼월 초구일 미시에 나의 아들 아담이 등국하여 들 것이니라.⁵¹⁾

이러한 심판에 있어 새로운 나라의 수도 계룡산의 동서남북 문은 양의 무리들은 드나들 수 있고, 염소의 무리들은 그 수도 터를 닦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신성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그리고 이순화에게서 태어날 아담 혹은 새별은 1918년으로부터 8년만에, 곧 1926년에 계룡산에 제위에 등극할 것으로 예언되고 있다. 계룡산에 진인이 도읍을 정하여 건국한다는 것은 정감록적 영향인데, 그 일시를 1926년 3월 9일로 잡은 것은 이색적이다. 1920년대 들어서는 증산

47) 正道敎總本部, 『正道敎法文』 9:6

48) 正道敎總本部, 『正道敎法文』 22:1 “이 역사는 내가 태초에 조선이라 하는 국을 정하기를 후천지 구만년은 내가 그 나라에 거하기로 작정하였는데 내가 거할 곳은 계룡산이니라.”

49) 正道敎總本部, 『正道敎法文』 8:10 (1917.4.5.)

50) 기독교적 전통에서 예수의 재림에 따른 심판에서 양은 의로운 이들을, 염소는 그렇지 못한 이들을 보통 상징한다.

51) 正道敎總本部, 『正道敎法文』 8:11

강일순, 보천교 교주 차경석 등이 1924년 갑자년 내지 1929년 기사년(己巳年) 등이 계룡산 혹은 정읍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설이 많이 퍼졌는데,⁵²⁾ 아담의 계룡산 등극은 좀 더 일찍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이러한 등극설은 아담 혹은 새별이 유산됨에 따라 그 의미를 잃어버린 듯 보이며, 대신하여 당시 계룡산에 등극할 인물로 진인(眞人)이란 용어 대신 많이 사용된 정도령(鄭道令)이란 말을 정도령(正道令)이라 하여 정씨 성의 인물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룡산에서 바른 도[正道]를 편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⁵³⁾ 이는 당대 인구에 회자되었던 계룡산과 정도령의 관계를 수용하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비틀고 있는 전유의 방식이다. 곧 이순화에게서 태어나기로 예정되었던 아담 혹은 새별은 시운과 관련하여 천국시대, 계룡산 시대의 진인으로 생각되었지만, 유산된 이후 하나님이 직접 계룡산에 좌정하여 령(令)을 내리는 것으로 나온다. 이는 정도교에서 정씨 성의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고 부정하였지만, 대천주(代天主)로도 불렸던 교주 이순화가 이러한 진인과 같은 인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여하튼 계룡산과 정도령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일제강점기 당시뿐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계속 성가(聖歌)로 불리며 교단에서 작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1절 좋을시구 좋을시구 계룡락원 좋을시구 계룡락원 맞이하며 환영가를 불러보세

12절 계룡락원 성전에서 정도령이 내림으로 생명빛과 영광빛이 일월같이 밝았도다⁵⁴⁾

V. 맺음말

서구의 개신교는 한국에 전래되며 많은 영향을 미쳤고, 신종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상적 자원으로 수용되어 새로운 종교사상을 이끌어 내었다. 이순화의 정도교 이후로 한국의 메시아운동사는 남방여왕(南方女王), 새주파(新主派) 김성도(金聖道), 조선예수교회 백남주(白南柱), 새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를 떠났던 황국주(黃國柱), 이스라엘 수도원(以生列修道院) 김백문(金百文), 신단정도회(神壇正道會) 정득은(丁得恩), 천부교(天父敎) 박태선(朴泰善) 등을 통해 전개된다. 이러한 개신교계 신종교 운동들은 때로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하였으나 한국의 종교지형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정도교를 통해 한국 종교지형에 있어서 개신교의 영향을 살폈다. 이 영향은 기존의 시운관과 정감록으로 대표되는 비기도참(십자가), 동학 등등 기존의 사상과 다종다양한 결합을 통해 새로운 정도교만의 사상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 이순화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상황에서 독립을 부르짖었고, 이에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조선의 독립운동이 신비적 형태로 종교 안에서 펼쳐졌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개신교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 한국종교 안에 녹아들었고, 현재까지도 신종교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개신교와 한국의 종교·사상과의 교섭과 소통이라는 주제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정도교와 같은,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 신종교의 자료와 사상을 통해 이같은 점들이 점차적으로 알려지리라 생각한다.

52) 차천자 등극설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박인규, 「1920년대 차천자 등극설 연구」, 『종교와문화』, 2021.

53) 正道教總本部, 『正道教法文』 68:16-17(1923.7.28.)

54) 『정도교성가』 「제46장 계룡운에 정도령가」